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목 :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성경: 요한복음 3장 31-36절

Tag:

31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32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33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34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35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36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3:31-36)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고 계신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사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은 아니다. 한분이시라는 의미로 우리가 부르는 호칭에 해당한다.

‘하느님’이라는 호칭도, 하늘에 계시다는 뜻으로 하늘에 계시는 분에 대한 호칭이다.

하느님이라는 호칭의 의미는 이 땅에 기원을 두신 분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호칭이다. 즉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 태어난, 이 땅의 소산을 먹고 생명을 유지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뜻으로서의 ‘하느님’이라 부른다. 보이는 이 세상으로부터 기원된 존재가 아닌, 오히려 이 모든 피조물의 존재의 기원이신 분이란 의미가 그 속에 담겨있는 호칭이다.

하나님이나 하느님이나 동일하신 분에 대한 다른 호칭일 뿐, 호칭이 두 개라 해서 서로 다른 분이 아니시다. 한분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

시는 분이시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아무도 모른다. 보통 우리는 여호와라 알고 있지만, 사실은 정확한 발음은 아무도 모른다. 야흐웨를 우리나라 말로 여호와로 번역했을 뿐이고, 그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르켜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며, 거기에 가장 근접한 모음을 붙여서 야흐웨라고 부를 뿐이다. 그러므로 사실 이 또한 사람이 만든 호칭이다.

하나님이라는 호칭은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 밖에 없다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 다른 모든 신은 거짓 신, 가짜 신이다.

(알라는 하나님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동 하는데, 알라는 마호멧이 속한 족속의 부족 신(달신)의 이름이다. 그는 기독교의 유일신 사상을 부러워 한 나머지 자기 부족의 신을 유일신이라고 억지 부렸다. 그렇다고 모든 아랍 민족들이 자기 조상의 부족 신을 섬기지 않는 것은 아니다. 지금도 여전히 각 부족들은 자기 조상의 부족신을 섬기면서도 알라를 유일하신 우두머리 신으로 섬기고 있는 셈이다. 엄밀히 따지면 이슬람교는 유일신교가 아닌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모방하고 싶어서 유일신교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이처럼 이름조차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 오신다. 구약성경의 수많은 예언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구약성경과는 차원이 다른 특별계시가 있으니, 그것은 곧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다. 그것도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직접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가장 위대한 계시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유일하게 지구 역사 상 딱 한번 있는 일이다. 어느 누구도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난 사람은 없다. 유일하신 한분이시다. 그래서 독생자, 하나님의 독자이시면서 이 세상에 속하신 분이 아닌데 사람의 몸으로 오신 유일하신 한 분이란 뜻이다.

삼위 하나님 중 유일하게 사람의 몸을 지니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사실 우리의 몸도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 빚어졌다.

역사적으로 이 땅에는 보통 사람과 다른 세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흙으로 빚으신 아담,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진 하와,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이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이 직접 빚으셨고, 두 번째 아담은 예수님으로 죄를 대신 감당하고 죄의 값을 치르신 분이시다.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 온 인류는 똑같이 남녀의 사랑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하나님과 영적인 DNA가 똑같으시고, 능력과 의지가 동일하신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을 뿐이지, 사실 이 ‘아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 바로 그 자체이신 분임을 나타내는 계시적 표현이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여러 차례 계시하셨다. 물론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다. 패러다임의 영적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패러다임의 영적 전환이 이루어지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이다.

예수님은 믿음을 촉발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용하셨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었다.

영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방해하는 요인은 크게는 세가지다.(그 외에 몇가지 특이한 요인이 있다.) 첫번째 요인은 율법주의다. 그 다음이 세속적인 죄의 욕망이다. 하나님보다 죄가 더 좋은 사람은 빛으로 나아오길 거부한다.

다음으로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영적 패러다임 전환이 어렵다. 그것

은 이미 자기 속에 악한 영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악한 영이 이미 구축한 영적 패러다임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31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러므로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니 만물 위에 계시는 분으로 온 우주의 창조주시며 주인이시다.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만 말할 수 있다. 예수의 이름을 사칭하거나 자신을 성령이라고 속이는 자는 거짓말 하는 자이다. 이땅에서 태어나 엄마 아빠가 있는 존재는 모두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아니다.

32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예수님의 이 땅을 초월하는 세계에서 보고 들은 것을 가감없이 증언 하셨지만, 영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증언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33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자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이다.

-믿음이 없이는 영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며, 영적 패러다임의 전환은 곧 세계관의 변화를 의미한다. 영적 전환이 일어난 사람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

-영적 패러다임의 전환의 시초는 회개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자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는 하나님이 참되신 분임을 자기 마음 속에 굳게 새긴 자이다.

-마음에 새기면 결코 잊어지지 않는다.

34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예수님과 성령님이시다.
- 성령님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된 이후에 이 땅에 임하셨다.

35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 이 표현은 매우 영적이며 시적이며 예언적이다.
- 성경은 예수님이 창조주이며, 온 우주의 주인이심을 증언하고 있다.
-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하신 관계는 사랑이다.
- 하나님이 사랑의 핵심이시며, 삼위 하나님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셨다. 삼위로 하나가 되신 존재 원리가 곧 사랑이다.
-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36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
느니라 (요3:31-36)

-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 곧 예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
- 사람도 사랑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삶이 결코 온전할 수 없다.
- 무엇보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영생을 누릴 길이 없다.
- 사람에게는 영생에 대한 갈망은 있으나, 그 길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밖에 다른 길이 없다.
-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 아들을 믿는자는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해야 한다.
- 오직 믿음으로 영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야 한다.
-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셔서 성령께서 그를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되고, 저주에서 풀리지 않게 되고,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아래 거하게 된다.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성경:

Tag: